
2025 JIT FINAL 0회 빠른 정답표 (한국지리)

JIT 모의고사 FINAL 0회 빠른 정답 (한국지리)

번호	정답	배점									
1	㉔	2	6	㉔	3	11	㉕	3	16	㉓	2
2	㉕	3	7	㉔	2	12	㉔	2	17	㉔	3
3	㉑	3	8	㉕	2	13	㉓	3	18	㉔	2
4	㉕	2	9	㉔	3	14	㉔	2	19	㉕	3
5	㉓	2	10	㉕	2	15	㉕	3	20	㉔	3

2025 JIT FINAL 0회 총평 (한국지리)

0회 시험지 총평 Comment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25학년도 JIT FINAL 0회 한국지리 총평입니다. 올해는 무료 배포 계획이 없었는데, 많은 수험생들의 문의 및 요청으로 수능이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 이렇게 1Set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직전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 반복 강조되는 부분, 연계 교재에서 중요 Point로 강조되는 부분들을 20문항에 담아냈습니다. 아마 평가원 기출과 연계 교재를 꼼꼼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문항 곳곳에서 그러한 Point들이 이쁘하게 녹여져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0회의 경우, 기본 교과 개념으로 변별하고자 하는 최근 경향성과 생소한 신유형 문항들과 핵심적인 개념이 활용된 자료 해석형 문항들이 적절히 잘 배치되어 있는 화차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난이도보다는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하였습니다.

첫 페이지에서부터 꽤 익숙한 그림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1번 문항은 택리지와 대동여지도 결합형으로 올해 9월 모의평가 1번 유형에 속하며, 3번 문항의 <영해 및 접속 수역법>과 영역에 대한 그림은 6월 모의평가 1번 유형과 유사합니다. 1번 문항의 경우 고지도와 고지리서를 결합하여 묻는 것이 최근 트렌드이며, 봉수나 역참의 역할도 깊게 묻고 있으니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3번 문항의 경우 기존 기출에서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만 언급했다면 <배타적 경제 수역법>을 꽤 깊게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문항의 경우 시·도별 스케일로 출제되었던 25 9평 4번 문항이 시·군 스케일로 적절히 변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별 신·재생 에너지의 분포 역시 수능특강에서 강조되고 있으니 알아두면 나쁠 것이 없는 포인트죠.

두 번째 페이지는 비주열적으로 압도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막상 뜯어보면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물어보는 바가 꽤 유사한 문항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5번 문항이 9월 모의평가의 12번 문항과 유사하죠. 8번 문항의 경우 신유형입니다. 유형은 다소 생소하나 자료에서 묻는 내용이 꽤나 기본적인 내용이라 큰 부담은 없었을 겁니다. 쟁점피케이션 역시 이제는 빈출 소재이니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개념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9번의 경우가 꽤 골치 아팠을 겁니다. 25학년도 9평 10번 문항이 연계되었는데 그보다는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죠. 중구의 높은 주간 인구 지수와 강남구의 많은 상주인구를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의 11번 문항 역시 새로운 유형입니다. 하지만, 꼼꼼히 읽으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과수와 채소의 시설 재배 면적을 묻는 내용은 25학년도 6평 17번 5번 선지에서 물어본 바 있기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외 12번과 14번은 선지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답을 골라내는 과정이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13번은 25 9평 18번, 15번은 25 9평 14번+16번 연계 문항에 해당합니다. 특히 15번의 선지가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는데 25 9평 16번에 무안이 자료로 직접적으로 제시된 바 있기에 기출 분석을 꼼꼼히 하였다면 큰 고민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16~18번이 다소 쉽고, 19번과 20번이 꽤 어려웠을 겁니다. 16번과 17번의 경우 25학년도 9평에서 묻고자 하는 바와 유사하면서도 평가원 기출에서 물었던 개념들이 문항에 잘 녹아져 있어 기출 분석을 꼼꼼히 하였다면 큰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18번의 선지가 매우 생소했을 텐데, 이는 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에 출제된 바 있는 개념이기에 알아두어도 나쁠 것은 없겠죠. 심지어 선지를 모르더라도 정답은 4번으로 나오도록 선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능장에서도 헛갈리거나 생소한 선지가 나온다면 빠르게 넘어가고 다른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 정답을 골라내는 태도를 길러봅시다. 20번의 경우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에 모두 출제된 바 있는 유형이기에 1등급 학생들에게는 꽤 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광양의 경우도 1981년에 대규모 간척으로 제조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2022학년도 수능 제조업 문항 개념이기도 하구요. 다만 19번은 해설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들 어려우셨을 겁니다. (가)를 겨울, (나)를 여름으로 잡아도 대강 지역이 잡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가)를 겨울로 잡을 경우 A가 서울, B가 서귀포, E가 울릉도인데 서귀포와 울릉도의 겨울 기온이 0.2도 밖에 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말이 안 되거든요. 한국지리에서 평가원은 고난도 문항을 출제할 때 이러한 세부적인 Point를 잡아내도록 문제를 설계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장에 24학년도 수능 기출인 9번 문항에서도 서해안과 강원도 동해안의 겨울 강수량을 직접적으로 비교시켰으니 말이죠.

한국지리 JIT FINAL 0회 시험지의 1등급컷은 46점, 2등급컷은 41점으로 예상합니다.

2025 JIT FINAL 0회 빠른 정답표 (세계지리)

JIT 모의고사 FINAL 0회 빠른 정답 (세계지리)

번호	정답	배점									
1	㉔	2	6	㉑	3	11	㉕	3	16	㉔	3
2	㉔	3	7	㉒	2	12	㉑	3	17	㉓	2
3	㉓	2	8	㉕	2	13	㉔	2	18	㉕	3
4	㉔	3	9	㉔	3	14	㉓	2	19	㉒	2
5	㉔	2	10	㉔	2	15	㉕	3	20	㉕	3

2025 JIT FINAL 0회 총평 (세계지리)

0회 시험지 총평 Comment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25학년도 JIT FINAL 0회 세계지리 총평입니다. 올해는 무료 배포 계획이 없었는데, 많은 수험생들의 문의 및 요청으로 수능이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시점에 이렇게 1Set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직전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 반복 강조되는 부분, 연계 교재에서 중요 Point로 강조되는 부분들을 20문항에 담아냈습니다. 아마 평가원 기출과 연계 교재를 꼼꼼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문항 곳곳에서 그러한 Point들이 이분하게 녹여져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0회의 경우, 기본 교과 개념으로 변별하고자 하는 최근 경향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1단원, 지형 문항은 쉽게 출제하였고 이후 단원의 3문항 중 1문항을 제외하고는 평가원의 일반적인 문항들과 유사한 난이도임을 느끼셨을 겁니다. 인문지리(종교, 인구, 도시)의 경우 과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문항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경제지리(식량과 에너지)의 너무 과하지 않게, 지역지리의 경우 최근 경향성과 가장 적합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난이도보다는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거나,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하였습니다.

첫 페이지는 첫 페이지답게 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1번 문항의 경우는 25학년도 6평의 1번과 유형과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유사합니다. 2번 문항의 경우는 25학년도 9평의 2번, 4번 문항의 경우 25학년도 9평의 4번 문항과 유형이 꽤 유사하죠. 선지 역시 일부 그대로 사용되었기에 기출 분석을 꼼꼼히 하였다면 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 실모치고는 전반적으로 매우 평이한 첫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5번 문항부터 25 9평의 악몽이 떠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도에 4개의 지점을 찍고, 3개 지점만의 기후 특성을 주는 유형이 새롭게 때문이죠. 9평에서도 난이도는 쉬웠지만 유형이 꽤 새로워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던 문항입니다. 6번의 경우 최근 기본 교과 개념으로 변별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잘 담겨있는 문항임을 느꼈을 겁니다. 24학년도 수능 8번에서 유사한 유형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선지들이 많이 생소했다면 이번 기회에 다들 잘 알아갑시다. 모두 교과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니 말이죠. 7번의 경우 자료보다는 선지가 많이 까다로웠을 겁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위치는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9번에 출제된 바 있고 나이지리아 역시 빈출 소재에 해당합니다. 9번 문항의 경우 25 9평에서 출제된 대서양의 발산 경계 개념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10번은 최근 지역지리 유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죠. (가)~(다)에서 설명하는 국가들의 특징은 모두 연계교재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들이 잘 담겨있으니 혹시라도 몰랐던 내용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잘 챙겨들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의 11번 문항은 25학년도 9평 4번 문항과 유사하죠. 9평에서는 하계 올림픽 개최 도시만 물었지만, 해당 문항은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지리특한 선지가 추가되면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의 수도 위치나 이름 등을 평가원에서는 강조하고 있죠. 베이징의 위치를 알아두어 나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2번의 경우 자료해석형 식량 문항인데 개념 공부만 꼼꼼히 하였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13번의 경우 수능완성 연계 문항인데 (가)를 왼쪽에서 아시아로 확장 짓고, 오른쪽에서 나머지 지역들을 확장 지으면 깔끔하게 지역들이 잡힐 겁니다. 14번의 경우도 최근 경향성에 맞게 주요 강의 위치, 그리고 사막의 위치들을 묻고 있죠. 네퍼드 사막과 룽알할리 사막을 모르더라도, '이열대 고압대' 키워드로 (나)가 사우디아라비아임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15번의 경우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이 연계된 유형입니다. 9평에서도 휴스턴과 LA를 직접적으로 골라내지 못했더라도 정답이 나오도록 선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문항 역시 동일합니다. 뉴욕이 1등인 점, 선벨트인 휴스턴과 LA가 상승세인 점, 러스트 벨트인 디트로이트가 하락세인 점을 잘 파악해야겠죠?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19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까다로웠을 겁니다. 19번의 경우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번 유형과 유사한데 제시문만 꼼꼼히 읽는다면... 정답을 고르는 것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죠. 유럽의 산업 지역들이 최근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16번에 잘 담겨있습니다. 이제는 유럽의 주요 산업 지역 특히 첨단 산업 클러스터들의 위치, 어느 국가에 소재되어 있는지도 모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2번 선지의 '톨루즈'가 많이 생소할 텐데 연계 교재에서 강조 중이니 프랑스에 있구나 정도로 그냥 알아두기만 합니다. 17번의 경우 섬유와 기계 및 전자 제조업이 나뉜 게 인상적이죠. 아마 (가)와 (나)의 비교가 좀 까다로웠을 텐데, 베트남이 최근에 값싼 노동력으로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였고, 값싼 노동력은 주로 노동 집약적인 섬유와 의류 제조업에 주로 이용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물론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기계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였죠.) 베트남과 일본의 제조업 세부 개념 비교는 수능완성에서 강조되고 있으니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18번의 경우는 신유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의 스케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묻는 것이 꽤 답하죠. 하지만 배웠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아주 깔끔하게 풀립니다. 판의 경계에만 집중되어 있는 (가)가 지열일 테고, 물을 구하기 쉬운 빙하호인 오대호 연안에 발전소가 다수 분포해 있는 (나)를 수력으로, 연중 일사량이 풍부한 남부 지역과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발전소가 다수 분포한 (다)를 태양광으로 잡으면 됩니다. 읽고 보니 모두 기본 교과 개념으로 배우는 내용이지요? 20번의 경우 25학년도 9평 19번과 유형은 유사하나 묻는 Point가 다르죠. 9평에서는 평균 기온 차이를 물었다면 해당 문항에서는 태양 고도각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꽤 고난도였을 터니 간단하게 해설을 달아보자면... (가)가 7월이면 D가 가장 남쪽에 위치한 퍼스일 텐데 지중해성 기후인 퍼스의 1월 강수량이 많을 수 없겠지요? 그렇기에 (가)는 1월, (나)는 7월입니다. 나머지는 배웠던 개념 잘 적용시켜서 지역들 잡아내면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세계지리 JIT FINAL 0회 시험지의 1등급컷은 45점, 2등급컷은 40점으로 예상합니다.